

주희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고 재 석 *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新民
II. 明德	V. 나오는 말
III. 明明德	

<국문 초록>

『대학장구』는 주희가 당대는 물론 후대 학자들의 서슴없는 비판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지니고 온 힘을 기울여 저술한 저작이다. 그는 明明德·新民·止於至善이 『대학』의 핵심강령을 통론한 것이고,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구체적 공부 방법으로 보았다. 또 여덟 가지 조목 가운데 격물치지의 명덕을 밝히는 공부의 핵심이고, 성의는 몸가짐을 참되게 하는 실천공부의 근본이며, 수신 이상은 명명덕의 공부이고, 제가 이하의 신민의 일로 여겼다. 사실, 『대학장구』는 그의 사유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핵심 경전이다. 그는 마음 본체인 明德에 대한 해석을 통해 心과 性의 不離不雜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修身 공부에 해당하는 明明德의 관점을 통해 知와 行의 합일구조를 조명하였으며, 명덕을 외부로 확대해 가는 과정인 新民의 해석을 통해 나와 주변이 합일 될 수 구조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大學章句, 三綱領, 八條目, 心性, 知行, 新民, 朱熹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uil99@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司馬光이 『通鑑』을 지으면서 “내 평생 정력을 이 책에 모두 쏟아 부었다”고 하였는데, 나 역시 『대학』에 그렇다.¹⁾

이는 주희가 淳熙16年(1189) 60세의 늦은 나이에 세상에 선보인 『大學章句』²⁾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자 독백이다. 사실 『大學』은 본래 『禮記』의 한 편인데, 唐代 이전에는 별로 중시되지 않다가 韓愈와 李翱 등이 『대학』·『중용』을 『논어』·『맹자』와 함께 핵심경전으로 간주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宋代 司馬光은 『大學廣義』를 지어 단행본을 최초로 간행하였고,³⁾ 明道와 伊川도 『대학』이 德을 닦는 관문이라 보고 각각 篇章을 개정하여 『大學定本』을 지은 바 있다.⁴⁾ 특히 二程은 『대학』 등의 유가경전을 중심으로 漢唐시기 성행했던 訓詁·辭章之學과 다른 義理之學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에 그 문인인 呂大臨은 『大學解』를 지었고, 李延平은 주희에게 가르침을 줄 당시 이천의 『대학』 해석을 두고 토론하기도 하였다.⁵⁾

-
- 1) 『朱子語類』 卷14, “溫公作『通鑑』, 言, ‘臣平生精力, 盡在此書.’ 某於『大學』亦然.”
 - 2) 주희는 『논어』·『맹자』의 주석을 ‘集注’라 하였고, 『대학』·『중용』의 주석을 ‘章句’라 하였다. 『논어』·『맹자』의 경우 北宋五子 및 二程 문하의 주석을 모두 모아 타당한 해석을 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기 때문에 『논어집주』·『맹자집주』라 한 것이고, 『대학』·『중용』의 경우는 이전 주석을 참고하되 分章이나 字句해석을 새롭게 시도하여 『大學章句』·『中庸章句』라 한 것이다. ‘章句’는 漢代 시작된 고전주석방식의 하나로 古書의 章節과 字句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훗날 주희 문인들은 이를 통합하여 『四書章句集注』라 하였고, 『四書集注』로 略稱하기도 하였다.
 - 3) 『四庫全書總目提要』, 「四書類」
 - 4) 『二程遺書』 卷22(上), “棣初見先生問, ‘初學如何?’ 曰, ‘入德之門, 無如『大學』. 今之學者, 賴有此一篇書存, 其他莫如『論』『孟』.”; 『二程遺書』 卷2(上), “『大學』乃孔氏遺書, 須從此學則不差.”
 - 5) 『延平答問』, “又見喻云, ‘伊川所謂未有致知而不在敬’者, 考『大學』之序, 則不

주희는 특히 『대학장구』를 자신의 사유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경전으로 삼았다. 淳熙元年(1174) 呂祖謙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대학장구』도 함께 보냅니다. 이것도 자세히 풀이한 글이 있는데 나중에 인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일러 얹어 지극하다고 한다[此謂知之至也]’는 구절은 다섯 번째 장 누락된 부분의 餘簡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자세히 묻고 경문의 아래에 붙여두었으니,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⁶⁾라고 적고 있고, 淳熙12年(1185) 56세의 나이에 문인 潘端叔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해 여러 책들을 수정하였는데, 그 중 『대학』이 가장 많이 수정하였다. 예전 보다 훨씬 상세하고 치밀하지만, 훗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다.”⁷⁾고 말하고 있다. 이는 45세의 나이에 이미 『대학장구』草稿가 완성되었고, 이후 출판하여 세상에 선보이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수정작업이 거듭되었음을 말해준다.

현행하는 『대학장구』는 慶元4年(1198) 廖德明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학』을 또 수정하였는데, 간이하고 평실하다. 차서를 바로잡은 것은 절필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고쳤다.”⁸⁾고 하였고, 朱熹의 문인 蔡沈이 『夢尊記』에서 “세상을 마치기 3일 전까지 『大學』의 誠意章에 대한 해석을 고치고 詹淳譽에게 받아 적도록 하였으며, 또 공부 방법의 요체에 대한 몇 글자를 수정하였다.”⁹⁾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大學章句序」에서 밝힌 淳熙16年(1189)의 작품이 아니라, 慶元6年(1200)까지 수정을 거친 최종 판본으로 보인다.

然.”

- 6)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36, 「答呂伯恭」, “大學章句并往, 亦有詳說, 後便寄也. ‘此謂知之至也’一句, 爲五章闕文之餘簡無疑. 更告詳之, 系於經文之下, 却無說也.”
- 7)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50, 「答潘端叔」, “今年諸書都脩得一過, 大學所改尤多, 比舊已極詳密, 但未知將來看得又如何耳.”
- 8) 『四書蒙引』 卷1, “戊午年, 與廖德明帖云, ‘大學又修得一番, 簡易平實, 次第可以絕筆.’”
- 9) 『夢尊記』, “初六日, 改『大學』誠意章, 令詹淳譽寫, 又改數字.”

주희는 明明德·新民·止於至善이 『대학』의 핵심강령을 통론한 것이고, 格物·致知·誠意·正心·脩身·齊家·治國·平天下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공부 방법으로 보았다. 또 여덟 가지 조목 가운데 격물치지는 명덕을 밝히는 공부의 핵심이고, 성의는 몸가짐을 참되게 하는 실천공부의 근본이며, 수신 이상은 명명덕의 공부이고, 제가 이하는 신민의 일로 여겼다.¹⁰⁾ 그가 『대학장구』를 經1章과 傳10章으로 나누고, 전 10장 가운데 앞 4장은 강령과 핵심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뒤 4장은 공부의 세부 조목을 상세히 논한 것이라 본 것도 이 때문이다.¹¹⁾

따라서 여기서는 주희가 『대학장구』를 통해 드러낸 마음 본체인 明德에 대한 이해와 수신을 위한 공부에 해당하는 明明德의 관점, 그리고 스스로 명덕을 밝힌 후 이를 점차 외부로 확대해 가는 과정인 新민의 해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明德

1. 명덕의 이중적 이해

1) 명덕은 性이다.

門人이 『대학장구』의 輔亡章을 인용하며 ‘명명덕’인지 묻자, 주희는 말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심과 성은 자체로 분별이 있다. 영묘한 것은 심이고 견실한 것은 성이다. 영묘함은 그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보

10) 『大學章句』 傳10章, “其第五章乃明善之要, 第六章乃誠身之本, 在初學尤爲當務之急, 讀者不可以其近而忽之也.”; 『大學章句』 經1章, “脩身以上, 明明德之事也. 齊家以下, 新民之事也. 物格知至, 則知所止矣. 意誠以下, 則皆得所止之序也.”

11) 『大學章句』 傳10章, “凡傳十章, 前四章統論綱領指趣, 後六章細論條目功夫.”

면 효의 가치가 드러나고 임금님을 모시면 충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이다. 또 어버이 봉양할 줄 알아 효를 실천하고 임금 섬길 줄 알아 충을 행하면, 이것이 바로 심이다. 장횡거가 “심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가장 정밀하다.¹²⁾

그는 또 말하였다.

영묘한 곳은 심이지 성이 아니다. 성은 그저 理일 뿐이다.¹³⁾

지각되는 것은 마음의 리이고, 지각하는 것은 기의 영묘함이다.¹⁴⁾

이는 주희에게 마음과 성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마음은 기 가운데 지각능력을 지닌 영묘한 기관이다. 비록 기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팔과 다리를 이루는 形氣와 달리 “기의 정수”¹⁵⁾가 되며, 돌이나 나무가 아무리 닦아도 사물을 비출 수 없지만 마음은 거울처럼 티끌만 제거하면 사물에 즉각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 가운데 본래 영묘함을 갖춘 사물”¹⁶⁾이 된다. 성 역시 지각능력을 지닌 마음과 엄격히 구분된다. 성은 그저 지극히 선한 理일 뿐이다. 제자가 仁義禮智의 성이 명덕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말한 것도,¹⁷⁾ 명덕을 ‘不雜’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모두 심과 성이 현실적으로 합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
- 12) 『朱子語類』 卷16, “劉圻父說, “‘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恐明明德便是性.” 曰, “不是如此. 心與性自有分別. 靈底是心, 實底是性. 靈便是那知覺底. 如向父母則有那孝出來, 向君則有那忠出來, 這便是性. 如知道事親要孝, 事君要忠, 這便是心. 張子曰: ‘心, 統性情者也.’ 此說得最精密.”
- 13) 『朱子語類』 卷5, “靈處只是心, 不是性. 性只是理.”
- 14) 『朱子語類』 卷5, “所覺者, 心之理, 能覺者, 氣之靈也.”
- 15) 『朱子語類』 卷5, “心者, 氣之精爽.”
- 16) 『朱子語類』 卷5, “氣中自有箇靈底物事.”
- 17) 『朱子語類』 卷14, “或問, ‘明德便是仁義禮智之性否?’ 曰, ‘便是.’”

2) 명덕은 본심이다.

주희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仁義禮智의 본성을 마음에 온전히 갖추고 태어난다고 보았다.¹⁸⁾ 이 지극히 선한 마음을 明德이라고도 하는데, 『대학장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虛靈不昧하고 못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모든 일에 응한다.¹⁹⁾

명덕은 마음의 본래상태를 나타내는 ‘心之本體’ 혹은 ‘本心’이 된다. ‘하늘에서 얻었다.[所得乎天]’는 것은 명덕의 본원이 하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명덕이 후천적 학습이나 경험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선천적 마음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희는 여기서 선천적으로 지니는 명덕은 티 없이 맑은 거울처럼 텅 비고 영묘하며 밝고[虛靈不昧], 또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어[具衆理] 외부 사물에 한 걸 같이 감응하는[應萬事]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공부를 통해 성인과 같이 마음의 본체를 온전히 회복하면 미발인 고요한 때에도 밝음을 유지하고 있고, 외부사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한 순간도 間斷없이 그 밝은 단서를 드러낸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주희는 심과 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 없음을 늘 염두에 두고, “지각되는 것은 리이지만, 리는 지각을 떠날 수 없고, 지각 역시 리를 떠날 수 없다.”²⁰⁾고 하였다. 문인이 지각작용은 마음의 영묘함이 본래 이와 같다는 것인지 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묻자, “리는 지각할 수 없다. 기가 모여 형상을 이루고 리와 기가 합해진 후에 비로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²¹⁾라고 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음을

18) 『大學章句』序, “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19) 『大學章句』經1章,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20) 『朱子語類』卷5, “所知覺者是理, 理不離知覺, 知覺不離理.”

현실적으로 밝은 덕에 해당하는 성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明道가 말한 “人生而靜以上, 不容說. 才說性時, 便已不是性”을 두고

‘人生而靜’은 미발한 때를 가리키고, ‘以上’은 사람과 만물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때를 말한다. 또한 ‘不可謂性’과 ‘才謂之性’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를 가리키므로, 이 리가 형기 속에 부여되어 온전한 이 성의 본체는 아니다.²²⁾

라고 하였다. 여기서 ‘人生而靜’은 마음속에 성이 내재되어 미발한 상태를 가리킨다. 기질이 형성되기 이전은 그저 ‘리’라고만 해야 한다. 성은 리가 형기 속에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이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과 심은 논리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합쳐져 있어서 일반 사람의 경우 편벽된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性의 본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누구라도 공부를 통해 성인의 밝은 마음처럼 때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다면, 성의 본체는 심과 하나가 되어 심은 성이고 성은 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과 성이 떨어질 수 없는 ‘不離’의 측면에서 명덕을 본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명덕을 밝혀야 하는 당위성

1) 기질

주희는 “오직 마음만이 상대가 없다”²³⁾고 하여, 사람 마음의 본래상태는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리가 아무리 지선하고 보

21) 『朱子語類』 卷5, “問, ‘知覺是心之靈固如此, 抑氣之爲邪.’ 曰, ‘不專是氣, 是先有知覺之理. 理未知覺, 氣聚成形, 理與氣合, 便能知覺.’”

22) 『晦庵集』 卷61, 「明道言人生而靜以上不容說」, “‘人生而靜’是未發時. ‘以上’即是人物未生之時. ‘不可謂性’·‘才謂之性’便是人生以後, 此理墮在形氣之中, 不全是性之本體矣.”

23) 『朱子語類』 卷5, “惟心無對”

편적 이치라 할지라도 품부 받은 기질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탁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인이 만물 모두 太極을 갖추고 있으므로 리는 온전하지 않겠냐고 묻자, “온전하다 해도 괜찮고, 치우쳤다 해도 괜찮다. 리로써 말한다면 온전하지 않음이 없겠지만, 기로써 말하면 치우침 또한 없을 수가 없다.”²⁴⁾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였다.

성은 곧 리다. 사람들이 선하고 불선한 이유는 품부 받은 기질에 각각 청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²⁵⁾

만일 성이 현실적으로도 마음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성의 본체는 지선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은 마음과 ‘不離’의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편벽된 기질이 불선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말이다.²⁶⁾

2) 인욕

주희는 또 불선의 두 번째 원인을 ‘人欲’이라고 말하였다.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虛靈不昧하고 못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모든 일에 응한다. 그러나 氣稟에 의해 제한되고 인욕에 의해 가리워져 때때로 어두워진다.²⁷⁾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본심을 상실한 후, 후천적 습관으로 그 본심을

24) 『朱子語類』 卷4, “問, ‘物物具一太極, 則是理無不全也.’ 曰, ‘謂之全亦可, 謂之偏亦可. 以理言之則無不全, 以氣言之則不能無偏.’”

25) 『朱子語類』 卷4, “性便是理. 人之所以有善有不善, 只緣氣質之稟各有清濁.”

26) 『大學章句』 序, “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27) 『大學章句』 經1章,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더욱 발현하지 못한다. 이에 제자가 좋지 못한 氣質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묻자, 그는

반드시 변화하여 본래대로 돌이켜야 한다. 만일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백번의 노력을 하고, 남이 열 번 만에 해내면 나는 천 번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한다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지혜로워 질 것이고, 나약하더라도 굳세질 것이다.²⁸⁾

라고 하였다. 인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편벽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²⁹⁾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순간의 마음을 다잡고 기질을 변화시켜 늘 至善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Ⅲ. 明明德

1. 明善의 핵심

1) 격물과 치지

주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선한 가치를 드러내는 공부인 ‘격물치지’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었다.

致는 미루어 지극히 함이고, 知는 지식과 같다. 즉 나의 지식을 미루고 지극히 하여 그 아는 바를 다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格은 이룬다는 것이고, 物은 일과 같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지극히 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³⁰⁾

28) 『朱子語類』 卷4, “或問, ‘若是氣質不善, 可以變否?’ 曰, ‘須是變化而反之. 如人一己百, 人十己千, 則雖愚必明, 雖柔必強.’”

29) 『朱子語類』 卷4, “人之爲學, 却是要變化氣稟, 然極難變化.”

30) 『大學章句』 經1章, “致, 推極也. 知, 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치’는 나의 지식을 미루어 확대하여 지극히 하는 것을 이르고 ‘격’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의 앎을 점차 확대하여 지극히 선한 이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치지이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점차 만물의 지극한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 격물이 된다.

그는 또 「傳」의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를 해석하면서, ‘此謂知本’은 전4장 말미의 ‘此謂知本’이 중복된 것이고, ‘此謂知之至也’는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遺失된 것으로 보고, 이전의 해석을 토대로 이를 보충하였다.³¹⁾

이른바 ‘치지가 격물에 있다.’고 한 것은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하면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하는 것을 이른다. 대개 사람 마음은 허령하여 모르는 바가 없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치가 있지 앎이 없지만 사물의 이치를 다 궁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식에도 극진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첫 가르침은 반드시 학자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더욱 궁구히 하여 지극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오래되면, 어느 날 활연관통하게 되어 여러 사물의 표리정조가 도달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내 마음의 전체대용이 밝혀지지 않은 바가 없게 된다. 이를 일러 물격이라 하고 이를 일러 앎이 지극해진 것이라 한다.³²⁾

여기서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하면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은 격물과 치지가 긴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31) 『大學章句』傳5章, “‘此謂知本’, 程子曰, ‘衍文也. ‘此謂知之至也’, 此句之上別有關文, 此特其結語耳.”

32) 『大學章句』傳5章, “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莫不有知, 而天下之物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教, 必使學者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치지와 격물은 선후가 구분되는 다른 층차의 공부
가 아니라, 대상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면 내 앎이 저절로 밝아지는 하나
의 공부라는 것이다. 문인에게 “격물은 그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철저히 궁구하는 것이고, 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
는 것이 철저하게 된 후 나의 지식이 다하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 지식을 미루어 지극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글의 뜻이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를 인식하였다면 여기에 의거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다
만 격물을 할 수 있으면 앎은 저절로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다
른 일이 아닙니다.”³³⁾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2) 격물의 세 단계

주희는 또 여기서 격물에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하였다. ‘사물에
나아가는 것[卽物]’과 ‘이치를 궁구하는 것[窮理]’, 그리고 ‘지극함에 이
르는 것[至乎其極]’이 그것이다.

‘즉물’은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 일상생활의 일과 반드시 연관된 일임
을 의미한다.³⁴⁾ 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학』에서 말한 격물치지는
바로 사물에 나아가 본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이
른다.”³⁵⁾고 한 것이나, 『대학장구』서문에서 “그 가르침으로 삼은 내용은
또한 모두 임금이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 터득한 핵심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몇몇한 윤리 밖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³⁶⁾

33)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51, 「答黃子耕」, “格物只是就一物上窮盡一物之理, 致知便只是窮得物理盡後, 我之知識亦無不盡處, 若推此知識而致之也. 此其文義只是如此, 纔認得定, 便請依此用功. 但能格物, 則知自至, 不是別一事也.”

34) 陳來, 「論朱熹『大學章句』的解釋特點」, 『文史哲』, 2007年 第2期, p.108.

35)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50, 「答潘文叔」, “大學所謂格物致知, 乃是卽事物上窮得本來自然當然之理.”

36) 『大學章句』, 序, “其所以爲教, 則又皆本之人君躬行心得之餘, 不待求之民生日用彝倫之外, 是以當世之人無不學.”

는 것은 바로 격물의 대상이 우주 밖의 현묘한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에 현현하는 인륜의 당연한 이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드러나는 가치가 해당됨을 강조한 것이다.

‘궁리’와 ‘지호기지’는 격물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되 마땅히 사물의 ‘所當然之理’를 밝혀 궁극적으로 ‘所以然之理’를 밝게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³⁷⁾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서 그가 격물치지의 궁극적 목표로 ‘활연관통’이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 이치탐구를 반복하다보면, 나의 앎도 점차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모든 사물의 表裏精粗한 이치를 모두 꿰뚫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인 명덕이 매 순간 밝게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된다.³⁸⁾

37) 그래서 주희는 「行宮便殿奏筭」에서 “학문하는 방법은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것이 없습니다. (中略)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군신간의 이치가 있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부자간의 이치가 있으며, 부부·형제·벗에서 부터 출입·응사·외물을 대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탐구하면 크게는 인군과 신하로부터 미세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所以然과 所當然을 알게 되어 조그마한 의심도 없게 됩니다.(『晦庵先生朱文公文集』 14, 「行宮便殿奏筭」, “蓋爲學之道, 莫先於窮理……夫天下之事莫不有理, 爲君臣者有君臣之理, 爲父子者有父子之理, 爲夫婦·爲兄弟·爲朋友, 以至於出人起居應事接物之際, 亦莫不各有理焉. 有以窮之, 則自君臣之大以至事物之微, 莫不知其所以然與其所當然, 而亡纖芥之疑.”)라고 하여 격물을 통해 ‘所以然’과 ‘所當然’의 이치를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38) 어찌 보면 이는 ‘천지만물이 무궁한데 어찌 모든 이치를 궁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논리적 답변이기도 하지만, 성인의 마음과 같은 본심의 회복은 공부를 통해 누구나 가능성을 굳게 믿은 데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趙恭父에게 편지를 보내 “대략 알고 있는 곳에 나아가 착실하게 체험하여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59, 「答趙恭父」, “就略知得處着實體驗, 須有自然信得及處, 便是眞知也.”)라고 하여, 궁구한 이치를 자기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자각해야 眞知가 됨을 강조하였다.

2. 誠身의 근본

1) 성의정심

주희는 ‘誠意’章이 본래 經文 아래에 있었으나 錯簡이 있어 순서가 어긋난 것이라 보고,³⁹⁾ 세상을 마치기 3일 전까지 이 장 해석에 대한 수정을 거듭하였다. 성의 공부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케 한다. 그는 『대학장구』 경1장의 ‘성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었다.

성은 참되게 하는 것[實]이다. 의는 마음이 드러난 생각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드러난 생각을 참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에 전일하게 하여 스스로 속임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⁰⁾

‘참되게 한다[實]’는 것은 ‘선에 전일하게 하는[一於善]’ 공부를 일컫는다. 격물의 과정을 통해 천리와 인욕을 분별하고 자신의 앎을 확립하였으면, 성의 공부로 이를 잘 함양하여 마음에 드러나는 의념이 준칙에 들어맞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순간 사사로운 욕심이 의념에 섞였음에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힘을 기울인다면, 금새 마음이 더럽혀져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주희는 또

그 뜻을 참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몸을 닦는 공부의 으뜸이다.⁴¹⁾

라고 하였다. ‘스스로 몸을 닦는 공부의 으뜸[自脩之首]’이라는 말은 성의·정심·수신이 躬行공부에 속하는데⁴²⁾ 그 중 성의가 실천공부의

39) 『大學章句』 傳5章, “此章舊本通下章, 誤在經文之下.”

40) 『大學章句』 經1章, “誠, 實也. 意者, 心之所發也. 實其心之所發, 欲其一於善而無自欺也.”

41) 『大學章句』 傳6章, “誠其意者, 自脩之首也.”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말이다.

물론 주희에게 있어 실천공부인 성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앎을 확립하는 격물치지 공부는 빠뜨려서도 안 되고 둘의 순서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성의’장을 매듭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그 뜻을 성실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앎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앎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참되게 된다.”고 하였다. 대체로 마음 본체의 밝음을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드러난 것이 실상 그 힘을 쓰지 못하고 구차하게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물론 이미 밝게 하였더라도 여기에 삼가지 앎으면, 밝게 드러난 앎이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되지 않아 덕에 나아가는 기초로 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성의’장의 뜻은 반드시 위 ‘격물치지’장에 이어 통하고 상고한 뒤에 비로소 공부에 힘쓰는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순서는 어그러뜨릴 수 없고 공 역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을 뿐이다.⁴³⁾

우선 격물치지를 통해 천리와 인욕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본체에서 드러난 앎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성의공부에 실질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다. 반면, 비록 앎이 확립되었다 할지라도 진일하게 持守하지 못한다면 그 선한 가치는 어느새 상실되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가 趙恭父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략 알고 있는 곳에 나아가 착실하게 체험하여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⁴⁴⁾라고 한 것도, 궁구한 이치를 자기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이

42) 『朱子語類』 卷14, “格物·致知, 便是要知得分明, 誠意·正心·修身, 便是要行得分明.”

43) 『大學章句』 傳6章, “經曰, ‘欲誠其意, 先致其知.’ 又曰, ‘知至而后意誠.’ 蓋心體之明有所未盡, 則其所發必有不能實用其力, 而苟焉以自欺者. 然或已明而不謹乎此, 則其所明又非已有, 而無以爲進德之基. 故此章之指, 必承上章而通考之, 然後有以見其用力之始終, 其序不可亂而功不可闕如此云.”

44)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59, 「答趙恭父」, “就略知得處着實體驗, 須有自然信得及處, 便是真知也.”

있게 자각해야 참으로 아는 것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드러난 의념을 참되게 하는 성의 공부(行)가 격물치지를 통해 확립된 앎(知)과 합일했을 때 비로소 실현되었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희는 성의 이외에 정심·수신 공부도 강조하였다.

이른바 밝히는 것은 치지·격물·성의·정심·수신으로, 모두 명덕을 밝히는 일에 해당한다. 다섯 가지 공부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다. 만일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덕은 밝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다.⁴⁵⁾

만일 격물치지에 미진함이 있으면 이 명덕을 아는 것이 분명치 않을 것이고, 의념을 모두 참되게 하지 못하면 이 덕이 밝게 드러나지 못 할 것이며,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덕이 밝지 못할 것이고, 몸이 닦이지 않으면 덕이 밝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념이 한 순간이라도 참되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한 순간이라도 참되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몸이 한 순간이라도 닦이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 명덕이 비로소 늘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⁴⁶⁾

지(격물·치지)와 행(성의·정심·수신)으로 구분되는 다섯 가지 명덕을 밝히는 공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실행에 옮겨야 완성될 수 있다.

2) 居敬涵養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선한 가치에 전일하게 힘쓰는[一於善]’ 성의 공부가 사실상 ‘居敬’공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거경’은 어느 하나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신중하고 엄숙하며 경건하게 하여 마음의 본체인

45) 『朱子語類』 卷14, “所謂明之者, 致知·格物·誠意·正心·修身, 皆明之事, 五者不可闕一. 若闕一, 則德有所不明.”

46) 『朱子語類』 卷14, “若是格物·致知有所未盡, 便是知得這明德未分明, 意未盡誠, 便是這德有所未明, 心有不正, 則德有所未明, 身有不修, 則德有所未明. 須是意不可有頃刻之不誠, 心不可有頃刻之不正, 身不可有頃刻之不修, 這明德方常明.”

명덕을 자각하고 체득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주희는 대상 사물과 마주한 후 본체에서 드러난 앎에 집중하는 거경공부를 愼獨이라고 하였다. 그는 ‘성의’장의 ‘愼獨’을 해석하며,

獨은 남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곳을 가리킨다. (中略) 그 참되게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남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삼가 그 기미를 살펴야 한다.⁴⁷⁾

고 하였다. 의념이 싹트는 자신의 마음에서 경에 머물러, 격물치지를 통해 확립한 앎을 가지고 이발한 의념을 찰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희는 소학공부를 통해 대학공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장구』의 서문과 격물치지 ‘輔亡’章에서

사람이 태어나 여덟 살이 되면 王公으로부터 아래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게 하여 灑掃·應對·進退의 절차와 禮·樂·射·御·書·數의 글을 가르쳤고, 열다섯 살이 되면 천자의 元子和 衆子로부터 公·卿·大夫·元士의 맡아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준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를 가르쳤다. (中略) 『대학』의 이 편은 소학공부를 통해 이론 공을 바탕으로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낸 것이니,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큼을 극진하게 함이 있고, 안으로는 그 절목의 상세함을 다함이 있다.⁴⁸⁾

대학에서 첫 가르침은 반드시 학자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토대로 하고 더욱 궁구히 하여 지극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⁴⁹⁾

47) 『大學章句』, 傳6章, “獨者, 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 ……其實與不實, 蓋有他人所不及知而已獨知之者, 故必謹之於此以審其幾焉.”

48) 『大學章句』, 序, “此篇者, 則因小學之成功, 以著大學之明法. 外有以極其規模之大, 而內有以盡其節目之詳者也.”

49) 『大學章句』, 傳5章, “大學始教, 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라고 하였다. 대학공부의 대상이 소학공부를 통해 토대를 구축한 선별된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소학공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몸의 훈련을 통해 마음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여기서 ‘소학공부를 통해 이론 공을 바탕으로 하였다[因小學之成功]’는 것이나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토대로 하였다[因其已知之理]’는 것은 소학공부가 대학공부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가 됨을 의미이다. 장기간 ‘쇄소·응대·진퇴의 절차’나 ‘예·악·사·어·서·수의 글’과 같은 소학의 본체함양공부 기초 위에 다시 대학의 격물·치지·성의·정심과 같은 공부를 지속하여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자각하고 체득해야 한다. 문인에게 편지를 보내 “옛사람들은 아마도 소학에서부터 함양하고 성취하였고, 대학의 道는 그저 격물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소학에 대한 함양공부가 없이, 그저 『대학』만 보고 격물을 공부의 처음으로 삼고 사려와 지식으로써 이치를 구하려 합니다. 더욱이 操存해야 할 곳에서 힘써 공부하지 않아 충분히 헤아렸다 할지라도 의거할 만한 실제적인 바탕이 없습니다. ‘경’자는 위와 아래를 다 꿰뚫는 의미이고, 격물과 치지는 그 안에서 절차에 따라 진보하는 공부일 뿐입니다.”⁵⁰⁾라고 한 것도, 그가 소학공부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대학의 성의가 마음에 드러난 의념을 찰식하는 이발시의 거경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소학은 대학공부에 들어가기 이전 평상시의 실천을 통해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토대를 완성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주희는 “성인 문하의 공부는 특별한 묘안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敬’자 하나일 뿐이다.”⁵¹⁾라고 한 것이다.

50)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43, 「答林擇之」, “今且論涵養一節, 疑古人直自小學中涵養成就, 所以大學之道只從格物做起. 今人從前無此工夫, 但見大學以格物爲先, 便欲只以思慮知識求之, 更不於操存處用力. 縱使窺測得十分, 亦無實地可據. 大抵敬字是徹上徹下之意, 格物致知乃其間節次進步處耳.”

IV. 新民

1. 교화의 실천

『대학장구』 서문의 첫 시작에서 주희는

한 번이라도 총명하고 예지하여 그 성품을 온전하게 다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만백성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 성품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것이 복회와 신농, 황제와 요·순이 하늘을 이어 인류의 지극한 표준을 세운 까닭이고, 사도의 벼슬과 전악의 관원이 설치된 이유이다.⁵²⁾

라고 하였다. 『대학』의 교육목표는 자기의 본심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모두가 지극히 선한 명덕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선험적인 마음의 본체를 온전히 회복한 복회·신농 등의 성인이 임금의 위치에서 도덕적 정치와 교화를 펼친 것도 바로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시도였다.

이러한 교육방법을 주희는 ‘新民’으로 풀이하였다. 『禮記』 속에 들어 있던 「大學」은 ‘親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천의 견해를 따라 ‘新民’으로 바꾼 것이다.⁵³⁾ 『대학혹문』에 그 근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 51)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41, 「答程允夫」, “聖門之學別無要妙, 徹頭徹尾只是箇敬字而已.”
- 52) 『大學章句』, 序,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伏羲·神農·黃帝·堯·舜, 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典樂之官所由設也.”
- 53) 이천이 ‘親民’을 ‘新民’으로 바꿔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정유서』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在新民’이라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주희는 “程子曰, 親, 當作新.”이라고 본 것 같다. 이천의 어록은 아래와 같다. 『二程遺書』 卷2(上), “『大學』‘在明明德’, 先明此道, ‘在新民’者, 使人用此道以自新,

지금 ‘친민’이라고 한 것은 문장의 맥락으로 추론해 보면 근거가 없지만, ‘신민’이라고 한 것은 傳의 문맥으로 볼 때 일리가 있다. (中略) 만일 고치지 않은 ‘친민’을 옳다고 고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류를 그대로 계승하고 그릇됨을 답습하여, 마음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더라도 일부러 천착하고 건강부회하여 그 설이 반드시 통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성인의 말을 업신여기고 후학들을 誤導하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니, 어찌 취하여 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⁵⁴⁾

그가 보기에, ‘친민’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문맥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본의를 잘못 해석하여 후학들도 그르치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 명덕을 밝힌 후 이를 남에게 미루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오래된 마음의 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⁵⁵⁾는 의미를 지닌 ‘신민’으로 고쳐야 비로소 성인이 『대학』을 통해 역설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상과 구체적 실천방법이 명확해진다고 본 것이다. 序文 마지막에 자신이 개정하고 풀이한 『대학장구』가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뜻과, 배우는 자의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 조급의 도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⁵⁶⁾라고 한 것도, 그가 바라본 『대학』의 교육이야말로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희는

그 배우는 자는 그 性分の 고유한 바와 職分の 당연한 바를 알아서 각각 힘

‘在止於至善’者, 見知所止.”

- 54) 『大學或問』, “今親民云者, 以文義推之, 則無理, 新民云者, 以傳文考之, 則有據……若必以不改爲是, 則世蓋有承誤踵訛, 心知非是, 而故爲穿鑿附會, 以求其說之必通者矣. 其侮聖言而誤後學也, 益甚, 亦何足取以爲法邪!”
- 55) 『大學章句』, 經1章, “新者, 革其舊之謂也, 言既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污也.”
- 56) 『大學章句』, 序, “極知僭踰, 無所逃罪, 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써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것이 옛날 융성할 때에 위로 다스림이 융성하고 아래로 풍속이 아름다웠던 까닭이니,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⁵⁷⁾

라고 하였다. ‘성분의 고유한 바를 알아서 힘쓰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명덕을 자각하고 이를 밝히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고, ‘직분의 당연한 바를 알아서 힘쓰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각자 맡은 바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아서 이에 주력하는 것을 말한다. 요순임금 시기 교화가 잘 이루어져 천하가 이로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스스로 명덕을 밝힌 후 관계하는 주변 사물을 교육하는데 힘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희는 명덕을 밝히고 남을 일깨워 각자의 명덕을 자각하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사대부가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다. 『대학장구』서문에서 공자가 비록 정치적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정사나 가르침을 천하에 베풀지 못했지만, 주유천하하며 임금을 설득하고 끝내 홀로 선왕의 법도를 취해 후학들에게 전해 「曲禮」·「小儀」·「內則」의 소학공부와 「대학」의 큰 도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한 것⁵⁸⁾도 공자를 통해 배우는 자의 사명이 ‘명명덕’과 ‘신민’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치의 적극적 참여

물론 주희는 제자가 ‘治國平天下’는 천자나 제후의 일로 卿·大夫 이

57) 『大學章句』, 序, “其學焉者, 無不有以知其性分之所固有, 職分之所當爲, 而各俛焉以盡其力. 此古昔盛時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而非後世之所能及也!”

58) 『大學章句』, 序, “時則有若孔子之聖, 而不得君師之位以行其政教, 於是獨取先王之法, 誦而傳之以詔後世. 若曲禮 少儀 內則 弟子職諸篇, 固小學之支流餘裔, 而此篇者, 則因小學之成功, 以著大學之明法, 外有以極其規模之大, 而內有以盡其節目之詳者也.”

하의 사람들과 무관한 일임을 지적하자,

비록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임금을 요순과 같은 성군으로 만 들고 그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이 선민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또한 제 분수 내의 일이다. (申略) 그러니 어찌 천하국가 다스리는 일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미리 그 근본을 바로잡고 본원을 맑게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⁵⁹⁾

라고 하였다. 임금의 지위에 있던 천한 지위에 있던 ‘명명덕’의 기초 아래 ‘신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주희는 당시 정치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바라본 道學의 관점에서 정치적 재건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당시 육구연이 임금님을 직접 뵈고 알현한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輪對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⁶⁰⁾며 관심을 보이고, 핵심처에서 임금께 諫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그렇다고 주희가 육구연의 관점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육구연이 효종을 알현하고 나서 올렸던 奏劄을 보내오자, 그는

주차를 보내주셔서 지극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크게 위로가 됩니다. 그 규모는 광대하고 원류는 깊으니 어찌 천박한 유생이 엿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폐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존형의 어떤 말에 허여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申略) 그러나 임금께 올린 관점에 발동하고 변화하는 곳이 없어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이 생기게 함은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禪學의 기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⁶¹⁾

59) 『大學或問』, “曰, ‘治國平天下者, 天子諸侯之事也. 卿大夫以下, 蓋無與焉. 今大學之教, 乃例以明明德於天下爲言, 豈不爲思出其位・犯非其分, 而何以得爲爲己之學哉?’ 曰, ‘……雖或勢在匹夫之賤, 而所以堯舜其君・堯舜其民者, 亦未嘗不在其分內也. ……安得不以天下國家爲己事之當然, 而預求有以正其本清其源哉!’”

60) 『陸九淵集』 卷36, 「年譜」, p.495, “不知輪對班在何時? 果得一見明主, 就緊要處下得數句爲佳, 其餘屑屑不足言也.”

라고 하여, 육구연이 본원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나라 다스리는 일만 거론하고, 도를 구하는 방법도 임금 마음을 살피는데 있다고 주장하여 불교와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VI. 나오는 말

『대학장구』는 주희가 당대는 물론 후대 학자들의 서슴없는 비판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지니고⁶²⁾ 온 힘을 기울여 저술한 저작이다. 따라서 그의 사유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인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선협적으로 품부 받은 성을 심과 들이면서 하나의 관계로 보고, ‘명덕’이 마음의 본래상태를 나타내는 ‘본심’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심과 성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한 명덕은 성인과 같이 마음의 본체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비로소 이름 가능하다. 일반 사람이 조금의 선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하여 그것을 본심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극태극논쟁에서 심과 성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 육구연의 관점을 지각작용을 성으로 보는 불교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性’과 喜怒哀樂이 미발했을 때의 ‘中’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렇게 선협적으로 지니는 명덕이 아무리 지선하고 보편적인 이치인 성 혹은 본심이라 할지라도, 주희는 품부 받은 기질에 따라 선천적으로 청탁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더 느끼기

61)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36, 「寄陸子靜」, “奏篇垂寄, 得聞至論, 慰沃良深. 其規模宏大而源流深遠, 豈腐儒鄙生所能窺測! 不知對揚之際, 上於何語有領會. ……但向上一路, 未曾撥轉處, 未免使人疑著, 恐是葱嶺帶來耳.”

62) 『大學章句』, 序, “顧其爲書猶頗放失, 是以忘其固陋, 采而輯之, 間亦竊附己意, 補其闕吳, 以俟後之君子.”

힘들다고 보았다.

명덕을 밝히는 공부인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은 知와 行의 공부영역을 일컫는다. 주희는 격물치지를 앎을 구하는 ‘求知’의 공부로 성의정심을 이치를 실천하는 ‘躬行’의 공부로 삼고, 두 공부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물론 그에게 있어 지와 행은 서로 엄격히 구분된다. 비록 격물을 통해 앎을 확립하였다 할지라도, 실천은 별개의 문제다. 스스로 속임이 없도록 격물공부로 확립한 앎을 가지고 마음에 드러난 의념을 참되게 하는 것이 성의 공부인데, 이것이 수반되어야 지와 행이 비로소 합일될 수 있는 것이다. 주희는 또 『대학』의 격물과 성의공부만 중시하여 이론적으로 이치탐구에 빠지는 폐단을 지적하고, 장기간 ‘쇄소·응대·진퇴의 절차’나 ‘예·악·사·어·서·수의 글’과 같은 소학공부의 기초를 튼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학의 기초아래 『대학』의 격물·치지·성의·정심의 명명덕 공부가 시작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은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명덕을 백성들 스스로 자각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주희는 『대학』의 교육목표가 자기 본심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모두 지극히 선한 명덕을 발현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고 보았다. 요순시기 교화가 잘 이루어져 천하가 이로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스스로 명덕을 밝힌 후 관계하는 주변 사물을 교육하는 신민에 힘썼기 때문이다. 그는 또 사대부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도하였다. 비록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이 선민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가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철학적 구도를 실천하기 위한 시도였다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朱 熹, 『大學章句』·『晦庵先生朱文公文集』·『朱子語類』, 上海古籍出版社, 2002.

王懋竑, 『朱熹年譜』, 中華書局, 2006.

黃宗羲, 『宋元學案』, 中華書局, 1986.

이동희, 『주자』, 성균관대학출판사, 2007.

余英時, 『朱熹的歷史世界』,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4.

趙 峰, 『朱熹的終極關懷』, 華東示範大學出版社, 2004.

陳 來, 『朱子哲學研究』, 華東示範大學出版社, 2000.

——, 『宋明理學』, 華東示範大學出版社, 2003.

Abstract

*A Study on Zhu Xi's Thinking System in 『Da Xue』 / Go Jae Suk**

Commentaries to Important Sayings in Da Xue is a work written by Zhu Xi using his lifetime painstaking efforts, and he had the confidence that this set of collected commentaries could withstand all kinds of questioning and criticism by scholars of his contemporary era and later generations. He believes that, “clarifying the moral sense”, “being new people” and “aiming at attaining perfection” constitute the general theory of the core guiding principle of Da Xue, and “investigating things”, “attaining knowledge”, “good faith”, “being up right in heart”, “cultivating one’s morality”, “building up the family”, “managing state affairs” and “governing the world” are the specific study methods. And of the eight rules, “investigating things” is the core of study on “clarifying the moral sense”, “good faith” is the fundamental thing in experiential learning of “cultivating one’s morality”, those above “cultivating one’s morality” deal with matters about “clarifying the moral sense” and those below “building up the family” are things about “being new people”. As a matter of fact, Commentaries to Important Sayings in Da Xue can be said to have reflected the core classical ideas of Zhu Xi’s ideological system completely. By his commentary on the highest virtue of the mind itself, Zhu Xi explain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 and the virtue; by his view point of “clarifying the moral sense” which is equivalent to cultivating one’s morality, he clarifies the dual structure of knowledge and behavior, interprets the process of expanding to the outside world for the highest virtue, that is, “being new people”, and he also probes into the structure of unity between Heaven and

* Researcher of Sungkyunkwan Univ. / uil99@hanmail.net

people.

【Key words】 sayings in DaXue, three guiding principles, eight rules, temperament, knowing and doing, being new people, Zhu Xi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2월 3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